

마포종점

1. 일반현황

조사일시	2017.04.25.	조사자	정화영	유형구분	문화예술-연구진제안
------	-------------	-----	-----	------	------------

대상명	마포종점
-----	------

□ 대상의 개요

보존대상의 특성	무형	물리적형태	-	보존대상의 가치범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단위 <input type="checkbox"/> 마을단위
----------	----	-------	---	------------	--

가수	은방울자매	작사가	정두수	작곡가	박춘석
음반 제작연도	1968년	음반 제작사	-	음반 규격	-
가사	<p>밤깊은 마포종점 갈곳없는 밤전차 비에젖어 너도섰고 갈곳업는 나도 섰다 강건너 영등포에 불빛만 아련한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 기다린들 무엇하나 첫사랑 떠나간 종점 마포는 서글퍼라</p> <p>저멀리 당인리에 발전소도 잠든밤 하나둘씩 불을끄고 깊어가는 마포종점 여의도 비행장엔 불빛만 쓸쓸한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 생각한들 무엇하나 곳은 비 내리는 종점 마포는 서글퍼라</p>				
평가	<p><마포종점>이 발표된 1968년은 서울의 전차가 운행을 중단한 해이다. 이 노래는 서울 도심에서 사라진 교통수단인 전차에 대한 향수를 담은 노래가 되었다. 노래 가사에는 마포 종점 뿐만 아니라 영등포, 당인리 발전소, 여의도 비행장까지 등장해서 그 시절 서울의 풍경을 엿볼 수 있다.</p> <p>1916년에 건립된 여의도 비행장은 1936년에 김포비행장이 문을 연 후에도 그대로 존속했고 광복 후에는 한때 미군이 사용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공군 기지로 쓰이다가 1971년에 폐쇄되었고, 현재 그 터에는 여의도 공원, KBS와 MBC 등의 방송사, 그리고 한국거래소 등의 여러 금융기관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반면에 현재 마포구 당인동에 있는 ‘서울화력발전소’가 1969년 이전에까지 ‘당인리 발전소’라 불렸는데, 노후 시설인 1~3호기를 폐지했으나 다른 것은 여전히 가동 중이다.</p> <p>이 노래를 작사한 정두수의 말에 따르면, 마포 종점에 있던 설령탕집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가사를 지었다고 한다. 즉 미국 유학을 갔던 남편이 과로로 세상을 마감하고, 한국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그 충격으로 정신착란 증세를 보여 신혼 초 사글셋방이 있던 마포 종점을 배회했고 어느 날부터 그 모습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정두수는 애절한 연인의 슬픈 사랑을 <마포종점>이란 노래로 만들었다.</p> <p>박애경과 김향미(이후 오숙남으로 교체)로 이루어진 은방울자매는 <마포종점>과 같은 전형적인 트로트로 당대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었다. 현재 서울 마포구 도화동 어린이공원에 <마포종점>의 노래비가 있다.</p>				

2. 보존필요성

- 1960년대 서울의 사회상과 서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음
- 서울의 근현대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표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


3. 활용방향

- 서울과 연관된 노래에 대하여 기록화하고 자료를 수집
- 시민홍보를 통해 작품의 가치를 일반 시민들과 공유


4. 소유자(관리자) 면담

면담자	
면담내용	

5. 인물(사건)에 관한 기본정보

이름	은방울자매 (1962년 ~ 2005년)	인물사진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1년 '박애경' 과 '김향미' 의 극장 쇼 무대 - 1962년 KBS 전국 연말 신인가수 선발대회에서 '김향미' 1등 수상 이 후 '은방울자매' 결성 - 1963년 「쌍고동 우는 항구」 라는 첫 앨범으로 본격 가수 데뷔 - 1981년 작은 방울 '김향미' 의 미국 이민으로 '오숙남' 멤버 영입 - 2005년 큰 방울 '박애경' 위암으로 사망 		
주요작품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년 노래 「쌍고동 우는 항구」 - 1964년 노래 「삼천포 아가씨」, 「무정한 그 사람」 - 1965년 노래 「삭발의 모정」 - 1968년 노래 「마포 종점」 		
수상경력	-		
기타사항	-		

※ 출처: 한국 대중가요 앨범6000 [은방울자매] (<http://terms.naver.com>)를 바탕으로 재정리

이름	정두수(본명 정두채) (鄭斗守, 1937년 ~ 2016년)	인물사진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7년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출생 - 1956년 부산 동래고등학교 졸업 - 1964년 서라벌 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졸업 - 1961년 국민재건운동본부에서 주최한 시 현상 공모 당선 - 1963년 가요 「덕수궁 돌담길」 작사가로 데뷔 - 1972년 한국연예협회 창작분과위원회 위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역임 - 1977년 한국연예협회 이사 역임 - 1997년 한국향토음악인협회 부회장 역임 - 2016년 사망 	
주요 작품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년 작사 「덕수궁 돌담길」 - 1965년 작사 「그 사람 바보야」 - 1966년 작사 「흑산도 아가씨」, 「가슴 아프게」 - 1968년 작사 「마포종점」 - 1972년 작사 「물레방아 도는데」 - 1979년 작사 「공항의 이별」 - 2013년 저서 「노래따라 삼천리」 	
수상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1년 국가재건운동본부 문예작품 현상공모 시 「공장」 당선 - 1967년 제3회 국제가요대상 작사상 수상 - 1968년 제3회 공보부 무궁화상 작사상 수상 - 1969년 제5회 TBC 가요대상 작사상 수상 - 1971년 제7회 TBC 가요대상 작사상 수상 - 1975년 제5회 한국예술문화유리위원회 예륜상 가요 부문 수상 - 1992년 제1회 하동군민대상 수상 	
기타사항	-	

※ 출처: 한국 대중가요 앨범6000 [정두수] (<http://terms.naver.com>), 위키백과 [정두수] (<https://ko.wikipedia.org>)를 바탕으로 재정리

이름	박춘석(본명 박의병) (朴椿石, 1930년 ~ 2010년)	인물사진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0년 서울 출생 - 1949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피아노 전공' 입학 - 1950년 경희대학교 영문과 편입 및 총무로 은성살롱에서 전속밴드로 활동 - 1954년 대중가요 「황혼의 엘레지」로 작곡가 데뷔 - 1955년 오아시스레코드사 전속 - 1964년 지구레코드사 전속 이전 이 후 트로트 작곡 시작 - 1980년 태양음향 공동 설립 - 1987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 1988년 거성레코드사 설립 및 대표 - 1994년 뇌졸중 발병으로 인해 활동 중단, 제1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수상 - 1995년 옥관문화훈장 수상 - 2010년 지병으로 자택에서 사망 이 후 은관문화훈장 수상 	
주요 작품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4년 작곡 「황혼의 엘레지」 - 1955년 작곡 「비 내리는 호남선」 - 1961년 작곡 「아리랑목동」, 변안곡 작곡 「틸」, 「파드레」 - 1965년 작곡 「섬마을 선생님」, 「흑산도 아가씨」 - 1967년 작곡 「가슴 아프게」 - 1968년 작곡 「마포 종점」 - 1972년 작곡 「삼팔선의 봄」, 「삼백리 한려수도」 	
수상경력	-	
기타사항	-	

※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박춘석] (<http://terms.naver.com>), 한겨레음악대사전 [박춘석] (<http://terms.naver.com>), 두산백과 [박춘석] (<http://terms.naver.com>), 위키백과 [박춘석] (<https://ko.wikipedia.org>)를 바탕으로 재정리

6. 기타사항

- 관련기사 - “[주간한국] [최규성의 대중문화산책] 공항을 소재로 한 명곡들 <2>”

1968년에 발표된 은방울자매의 명곡 '마포중점'은 최초의 공항인 여의도비행장을 언급한 진귀한 노래다. 60년대 전차의 종점인 변두리 마포의 쓸쓸한 밤 풍경과 강 건너 영등포로 떠난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이 노래가 발표된 1968년은 서울의 전차가 운행이 중단된 해이기도 하다. 전차뿐 만이 아니다. 2절에 등장하는 당시의 여의도는 비행기가 뜨고 지는 비행장이 있는 공간으로 묘사되어있다.

당시 보릿고개라는 가난을 탈출하고자 고향을 떠난 이들은 마포와 한강 넘어 영등포였다. 영등포지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일하면서 고단하고 지칠 때 그들은 고향에 두고 온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몸살을 앓았을 것이다. 또한 사랑하는 이가 일하고 있는 강 건너 영등포 지역의 공장 불빛은 아련하고 연인과의 거리를 더 멀게 느끼게 만든 그 가운데에 위치한 거대한 여의도비행장의 존재는 야속했을 것이다.

출처: 데일리한국 2015년 11월 28일 기사내용 (<http://www.seoul.co.kr>)

- 관련기사 - “[김문이 만난사람] 3500곡 작사... 전설의 작사가 정두수”

노래마다 대부분 사연이 조금씩 있어요. ‘마포중점’은 마지막 전차에서 이별하는 것이고 나훈아가 불러 크게 히트시킨 ‘물레방아 도는데’는 어린 시절 헤어진 삼촌과 애절한 그리움을 담은 것이지요. 1972년에 써서 문주란이 부른 ‘공항의 이별’은 서독으로 가는 광부와 간호사들이 김포공항에서 가족들과 이별하는 내용을 다룬 것입니다. 이미자와 남진한테 약 500곡씩 써준 것 같네요.”

출처: 서울신문 2014년 2월 12일 기사내용 (<http://daily.hankooki.com>)

- 관련기사 - “[28주년 창간기획] 과거와 미래의 공존...‘최초의 길’ 걷는 지하철전소”

새로워지는 일이 신진대사를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인간의 숙명이라고 한다면, 지난 것에 바탕해야만 하는 것도 인간의 숙명이다. 이 이야기를 하러 온고니 일신이니 한 건 아니지만, 옛날 옛날 한 옛날에 <마포중점>이라는 대중가요가 있었다.

마포중점은 전차가 다니던 시절 그 전차노선의 종점이라는 것인데, 가사는 ‘밤 깊은 마포중점 갈 곳 없는 밤전차’로 시작하여 ‘저 멀리 당인리에 발전소도 잠든 밤 / 하나둘씩 불을 끄고 깊어가는 마포중점’으로 이어져 ‘첫사랑 떠나간 종점 마포는 서글퍼라’ 로 끝을 맺는다. 첫사랑 떠나간 자리는 어디건 가슴 짠하기 마련이지만, 당인리 발전소가 잠든다면 불은 하나둘씩 꺼질 것이고, 그러면 더욱 서글퍼질 것이다.

출처: 에너지경제 2015년 5월 26일 기사내용 (<http://www.ekn.kr>)